

Investment Strategy 2026.9.14



글로벌

마켓 브리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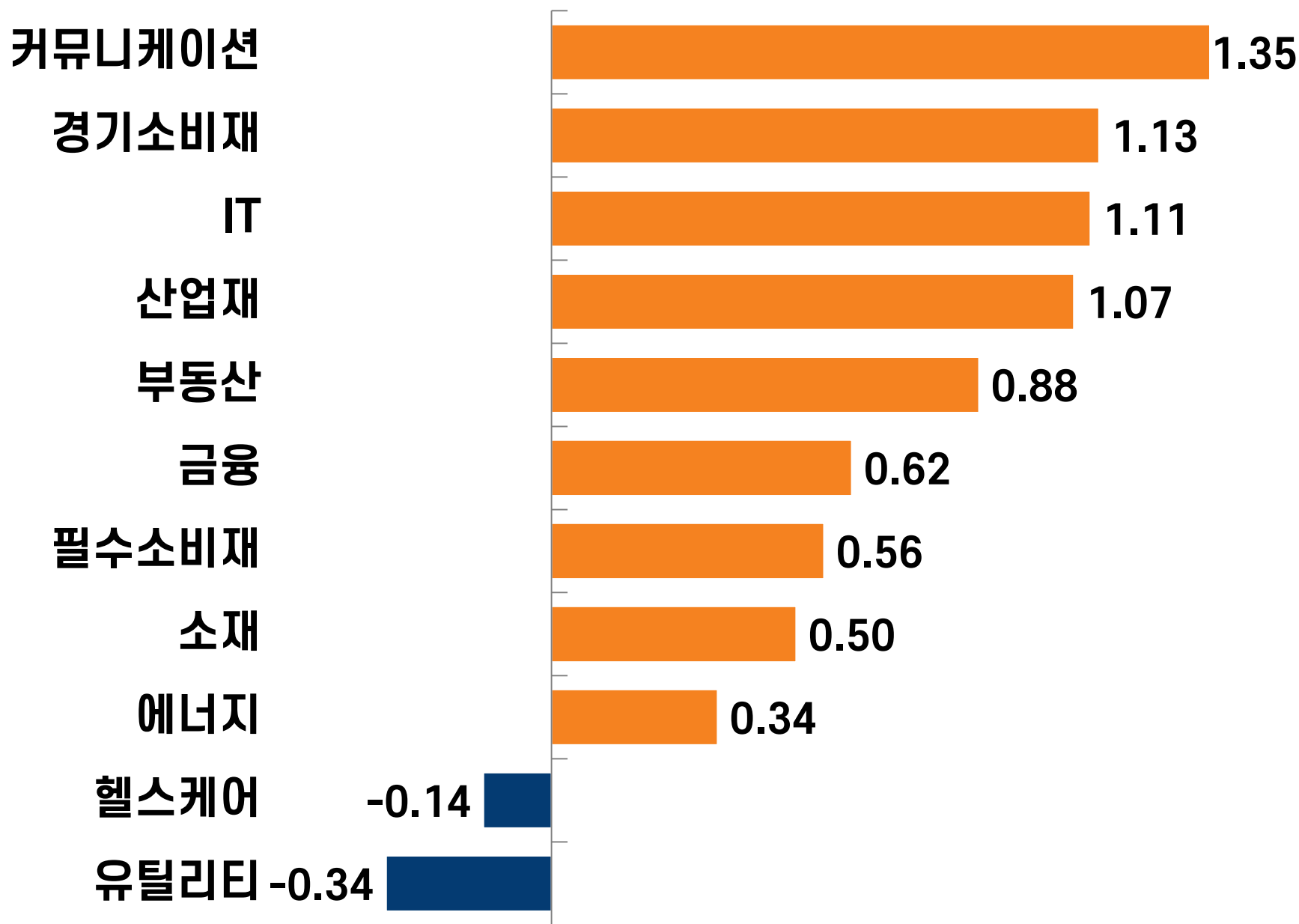
유가 진정에
되살아난 위험 선호

미국증시 주요지수

지수	종가	등락률
다우존스 산업평균	52,573.29	+0.98%
S&P500	7,656.98	+0.86%
나스닥 종합	26,333.04	+0.96%
나스닥 100	29,368.44	+0.91%
러셀 2000	2,903.94	+0.45%
필라델피아 반도체	11,824.00	+1.81%
VIX	15.84	-11.21%

주: 작성 시점 기준

S&P500 업종 지수

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유가 하락이 이끈 증시 반등

- ✓ 공급 정상화보다는 긴장 완화 기대를 반영
- ✓ 이란과 걸프국가의 회담 추진, 후티 반군의 교전 중단 발언 등
- ✓ 중동 긴장 완화 기대를 높이며 위험선호 회복을 지원(VIX -11%)
- ✓ IEA, 올해 글로벌 원유 공급 부족을 하루 175만 배럴로 예상

주: 작성 시점 기준

8월 근원 CPI

YoY 둔화보다 MoM 반등에 주목

✓ 미국 8월 근원 CPI는 YoY +2.4%, MoM +0.3%
(예상 +2.4%) (예상 +0.2%)

✓ 금리선물에 반영된 9월 금리 인상 확률 약 90%로 상승

✓ FOMC의 관건은 '한 번의 인상'보다 '이후 경로'

✓ 미시건대 9월 소비자심리지수 ↓, 기대인플레이션 ↑
(51.7 ▷ 47.8) (4.0% ▷ 4.6%)

주: 작성 시점 기준

AI 개발 속도 조절 논의 부상

- ✓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 “최첨단 AI 모델 개발 속도 조절” 제안
- ✓ 오픈 AI 샘 알트먼, xAI 일론 머스크가 해당 제안에 지지 표명
- ✓ 알트먼 “현재 안보 상황을 이유로 올해 IPO 추진 부적절” 언급
- ✓ 하이퍼리쿼드X에서 오픈AI·엔트로픽 관련 자산 약세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상승 특징종목

델 테크놀로지스 +11.98%

오라클의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 재확인에 AI 서버 수혜 기대 확대. 오라클 CFO가 직접 언급.

휴렛팩커드 +12.44%

델과 함께 오라클의 인프라 투자 수혜업체로 지목되며 급등. 서버·네트워크 장비 관련주 강세 주도.

마벨 테크놀로지 +4.03%

AI 서버·네트워크 장비 및 광통신 관련주 동반 강세 속 상승.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인프라 연결·통신 강세

스카이웍스 +9.79%

IT 하드웨어 전반에 온기 확산 및 통신 반도체 재고 조정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와 RF 칩 수요 회복 기대

온 세미컨덕터 +8.51%

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숏커버링 유입과 데이터센터 전력 제어 반도체 납품 확대 기대감

알파벳 +1.53%

클라우드 부문의 강력한 성장과 더불어 핀란드에 130억 유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함. 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

주: 작성 시점 기준

하락 특징종목

오라클 -1.74%

\$660B가 넘는 AI 수주잔고에도
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입되는 대규모
자본 지출과 차입금 부담에 매물 출회

시게이트 -3.73%

저장장치 관련주가 장 초반 상승분을
반납하는 흐름 속 하락. 서버·네트워크
장비주 강세와 대조적인 움직임.

웨스턴디지털 -3.04%

시게이트와 함께 저장장치 업종 약세.
AI 인프라 투자 기대가 관련 하드웨어
전반의 동반 상승으로 확산되지 못함.

코파트 -2.60%

경쟁사인 ACV 경매업체를 약 20억
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.
ACV 주가는 약 40% 넘게 급등

뉴스케일 파워 -15.67%

소형모듈원전(SMR) 섹터 전반에
차익 실현 매물 집중. 상업화 일정 및
자본 조달 비용 부담도 주가에 부정적

크로락스 -1.14%

바클레이스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
여력 둔화 및 원자재 비용 압박을
지목하며 목표주가 하향 조정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상품 동향

WTI (10월물)	100.05달러	-2.37%
브렌트유 (11월물)	104.61달러	-2.81%

✓ 변동요인

유가는 이란·걸프국가 회담 추진과 후티 측 교전 중단 발언으로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일부 후퇴. IEA의 원유 수요 전망 하향도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. 다만 생산·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어, 유가 하락을 공급 정상화의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.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채권 동향

미 2년물	4.63%	+3.98bp
미 10년물	4.97%	+0.43bp
미 30년물	5.35%	-1.30bp

✓ 변동요인

근원 CPI의 예상 상회로 금리 인상 기대가 강화되며 정책에 민감한 단기물 금리가 상승. 반면 장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흐름을 보임.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외환 동향

달러인덱스(DXY)	99.12	+0.08%
달러-원	1342.60	-4.90원
달러-원 NDF 1M	1341.09	-9.20원

✓ 변동요인

미국 CPI 발표 후 금리 인상 기대에 상승했던 달러는 유가 반락과 함께 상승폭을 축소. 달러인덱스는 장중 99.36까지 높아졌다가 99.12 수준으로 되돌아옴.

주: 작성 시점 기준

Complian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